

일시금 상향 놓고 强 VS 强... 금호타이어, 출구가 안보인다

노사 대표 끝장면담 또 무산

勞 “일시금 300만원+ α 를”...社 “무노동 무임금 원칙” 최장 파업에 매출 1200억·공장 가동률 25% 밀돌아 지역민 반감도 확산...시민단체·정치권 “대승적 양보를”

파업 한 달을 넘긴 금호타이어의 노사 교섭이 사실상 결렬된 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32일째, 이에 맞서 사측이 직장 폐쇄 조치를 취한 지 8일째이다. ‘끝장 교섭’이 번번이 결렬되면서 노사 설립 42년 만에 최장 파업, 최장 직장 폐쇄라는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다. 또 설상가상으로 전면 파업과 직장 폐쇄로 맞서고 있는 노사 양측이 고소·고발전까지 펼쳐고 있어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본교섭-대표자 협상도 끝내 무산 ‘평행선’=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5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일시금 지급 규모와 무노동 무임금 보전 여부 등을 놓고 평행선 대립이다. 본교섭은 지난 8일 이후 중단됐고, 대표자 면담도 9일부터 이틀간 김창규 대표와 허용대 대표지회장 간 1대1 끝장 면담으로 진행됐지만 합의 도출엔 실패했다. 추가 협상도 미지수고, 열리더라도 극적 타결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허 지회장은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임금손실액이 1인당 300만원을 넘어선 만큼 보전 방법으로 사측이 제시한 일시금 300만원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반면 김 대표는 장기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일시금 상향은 어렵다는 원칙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일시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노조 주장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본교섭이 아닌 대표 단독 면담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만 봐도 무노동 무임금 보전 요구가 옳지 않다는 것을 노조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노측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도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측이 일시금 상향으로만 논의를 몰아가고 있다”며 “협이 진전이 없는 이상 파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임금피크제에 노사불신까지 대치국면 장기화=이번 분규는 의아스런 대목도 적

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간의 현격한 의견차, 워크아웃 돌입이나 1970년대식 노조탄압과 같은 ‘빅 이슈’가 없는 상황임에도 갈등의 골은 깊다. 노조 한 간부는 “드러난 쟁점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300만원의 일시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다. 지난 5년간 워크아웃 기간에 억눌렸던 노동자 권리와 노조 위상 회복을 위한 상징적 투쟁”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 때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측이 이제 와서 경쟁력과 생산력 운운하니 수긍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손실액이 노조가 요구한 일시금 규모를 넘어지고 있음에도 조합원들이 현장 복귀를 독려하는 회사측 문자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측 태도도 워크아웃 전과 사뭇 다르다. “조용한 게 좋다”며 파업 관련 대응을 극도로 자제하던 사측이었지만, 워크아웃 돌입 후엔 180도 바뀌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노조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입장을 알리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가차없다. “더 이상 노조에 끌려 다닐 수 없다” “오래된 노동운동 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게 기본 판단이다. 노사 모두 ‘워크아웃 학습효과’가 협상 태도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워크아웃 기간에 굶은 상처와 수십년 쌓여온 노사 불신이 서로를 옥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원 지역민...“대타협 만이 살 길” 촉구=노사가 전면 파업과 직장 폐쇄로 맞서는 사이 매출 손실은 1200억원에 육박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파업 조합원들의 임금손실액도 1인당 35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공장 가동률은 25%를 밑돈다. 광주·전남 130여개 대리점을 비롯해 190여개 협력업체는 한 마디로 ‘죽을 맛’이다. 대리점은 공장으로부터 교체용타이어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서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

한 협력사 대표는 “1년이 멀다하고 터지는 분규로 가슴이 미어지는 일도 한두 번 아니었는데 올해는 (파업이) 전에 없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금호타이어 직원 1인당 매출액은 3억70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4% 감소했다. 금액으로도 4300만 원이 줄어 감소액이 국내 타이어 3사 중 가장 많다. 지역민들의 반감도 크다. 한 공기업 직원은 “며칠 전 타이어를 교체할 일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넥센으로 갔었다”며 “요즘 금호타이어를 한국 또는 넥센으로 갈아타려는 직원들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아무래도 노사 갈등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단체와 정치권, 경제계, 협력사들 사이에서는 “단 하루 이틀 만이라도 파업과 직장 폐쇄를 풀고 전향적으로 집중 교섭에 나서거나 대표자 추가 협상을 통해 대타협의 물꼬를 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자영업자 대출 증가 사상 최고

8월까지 230조원...작년말보다 20조원 늘어

가계 빛이 1130조원을 넘어서며 경제를 짓누르는 뇌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가계대출과 경제가 모호한 개인사업자 대출도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9조7000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20조4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8월 기간 늘어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45조3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불어 역대 개인사업자 대출액이 가장 많이 늘었던 2007년의 연간 증가액 19조8000억원 기록을 불과 8개월의 기간에 갈아치웠다. 특히 7월 한 달간 늘어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액은 3조7000억원으로, 2005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소호(SOHO) 대출’이라는 이름 아래 2000년대 중후반까지 크게 늘었던 개인사업자 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률이 상승하면서 2008년에는 증가 규모가 6조7000억원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이 뜸해진 사이 은행들은 다시 개인사업자 대출시장을 주목했고, 대출 증가 폭은 2011년 13조원, 2012년 15조원, 2013년 17조1000억원, 2014년 18조8000억원으로 다시 커졌다. 올해 들어서는 저금리 기조와 생계형 창업 증가, 업황 부진 등이 겹치면서 증가 속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융자 지원을 늘리면서 7월 들어 개인사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대출도 잠재 위험이 크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3년 10월 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경기 부진으로 감소하면 채무부담 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5 17 25 37 42 43	1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228,764,393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5,005,629	40
3 5개 숫자일치	1,685,176	1,543
4 4개 숫자일치	50,000	81,344
5 3개 숫자일치	5,000	1,368,363



트로트 요정, 롯데백화점 광주점 17주년 기념 공연
지난 12일 오후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정문 앞 무대에서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개점 17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공연에는 300여명의 시민이 찾아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롯데 아울렛, 남악 신도시 입점 무산

점포개설 등록 신청 취하...건물 공사는 그대로

롯데쇼핑이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입점을 추진했던 대형 아울렛의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신청’을 취하했다. 따라서 일단 롯데쇼핑의 입점은 무산됐지만 전남도청 이전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남악신도시에 대형 할인매장들의 재 입점 추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점포개설등록 신청을 접수받은 후 롯데 측에 보안 요청을 했는데, 그 기간 중인 지난 8월 신청서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쇼핑 측의 입점 움직임과 관련, 새정지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지역 상인들이 반발했었다. 또 최근 롯데는 농민 반대 등으로 쌀도정 사업을 포기했

다. 그룹 총수 형제간 다툼 등으로 나빠진 그룹 이미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업을 중단하고 무안의 대형쇼핑 센터 건립 계획도 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GS리테일이 남악 골프연습장 앞 6만4922㎡(2만여평) 부지를 500여억원에 구입, 건축면적 1만4200평(4만6942㎡)에 지상 4층 규모의 대형마트와 아울렛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무안군은 3월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지역 유통계에서는 이 건물이 애초 대형쇼핑 센터를 염두에 두고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형매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산단공-지역에코혁신사업 참여기관 협약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EIP사업단(사업단장 편규현)은 지역에코혁신사업 참여기관인 광주 경제고용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스마트에코뷰와 함께 광주지역 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지역에코혁신사업간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을 고려한 자원순환 및 청정생산업이 환경개선과 함께 이익창출의 새로운 모델임을 인식하고 이를 광주지역 기업에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 최고의 마진
- ▶ 최소의 창업비용
-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육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

프리모 남가발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가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선(D) 대신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